

“의혹 대체로 소명” “임명땀 전면투쟁”...여야 충돌 격화

한국당·바른미래 철회 압박 강행땀 국회 ‘도미노 파행’ 興와 갈등 검찰 수사도 부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후 여당은 조 후보자의 임명을, 야당은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각각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이 급경간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경우,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특검 추진 등 강력한 대어 투쟁에 나서겠다고 버티고 있어 정치국회 파행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조국 정국 1라운드’였다면, 임명 문제를 놓고 또다시 극한 대치하는 ‘조국 정국 2라운드’가 펼쳐질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조 후보자 관련 수사를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는 여권과 검찰의 갈등이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어 정국의 긴장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될 경우 교섭단체 대표연설(17~19일), 대정부질문(23~26일), 국정감사(30일~내

달 19일)와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일정의 ‘도미노 파행’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임명’ 쪽으로 굳히기를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대체로 소명됐고, 해당 의혹들은 대부분 야당의 정치공세에 의한 ‘가짜뉴스’였다는 것이 판명났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사법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사법개혁의 상징인 조 후보자의 임명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나아가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수사를 진행하며 조 후보자 임명 저지를 위한 정치적 의도를 드러냈다면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여론전에도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며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거듭 압박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법무 장관으로서 최소한 자격 요건조차 상실했다”면서 임명 강행 시 전방위적 대어(對興)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전포고했다. 한국당은 휴일인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황교안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조 후보자와 여당, 청와대를 향해 파상공세를 펼쳤다.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이 피의자 조

국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바로 그날이 문재인 정권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순간 특별검사(특검)와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압박했다. 당내에서는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국정조사 실시, 장외집회 등이 거론된다.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조 후보자 임명 반대 기류가 강경한 만큼 한국당은 장관 해임 건의안과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권 공조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면서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조와 특검을 놓고 공조에 나설 경우, 민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점에서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시 극도의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검찰개혁이 화두에 오른 만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 문제도 ‘조국 정국 2라운드’의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9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이 6일 오후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태풍 ‘링링’ 대처상황을 보고 받는 모습. /연합뉴스

데스노트 판정 끈낸 정의당 “검찰개혁이 우선”

“조국 임명하면 힘 모아줄 것” “검찰수사 정치개입” 비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 사실상 적격 판단을 내린 정의당은 8일 사법개혁 힘 실기에 나섰다.

유상진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에 대해 정의당도 공감하고, 만약 조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그를 존중하고 같이 힘을 모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사법개혁이 조 후보자를 통해서 가능할 것인지 여부는 문 정부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판단할 부분”이라며 “대의적 차원에서 문 대통령의 임명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관계자도 “조 후보자가 아니면 사법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 후보자를 매개로 사법개혁을 할 것이냐 저지할 것이냐는 전부는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

특히 정의당은 검찰이 조 후보자와 관련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중앙대학교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데 대해 ‘정치 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검찰 아니면 볼 수 없는 자료들이 청문회 상에서 돌고, 특히 부인을 소환 없이 기소한 부분은 검찰의 전횡이라고 볼 수 있다”며 “당은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검찰이 조 후보자로 상징되는 검찰 개혁이 안 되겠다 싶어서 나라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한국당을 도와주는 형국으로 돌아갔다”며 “검찰개혁을 자초하려는 검찰과 한국당의 합작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 내부적으로는 조 후보자에 대한 지도부의 적격 판정을 놓고 이견이 지속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장 정의당 페이스북의 당 입장 관련 글에는 “늦었지만, 정의당의 결정에 감사한다”, “당명을 바꾸라” 등 상반된 댓글이 달렸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당 결정에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며 “오히려 당의 이후 행보에 주목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심상정 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의당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사실상 적격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 찢고 고성 오가고...결정적 한방 없이 끝난 ‘맹탕 청문회’

여야 조국 청문회 치열한 공방 ‘국민학생’ “깡판” 격렬한 설전 여상규 ‘불공정 진행’ 논란도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의 첨예한 대치로 파행을 거듭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오전 10시 3분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의 개의 선언으로 시작된 인사청문회에는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힌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을 제외하고 17명의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이 모두 참석했다.

◇사실상 ‘국민청문회’...PPT·동영상 총동원 여론몰이=여야 의원들은 청문회에 대한 여론 집중도를 의식한 듯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동원해 여론몰이를 폈다. 여야를 통틀어 첫 질문에 나선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사법개혁 등 조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현안을 담은 파워포인트(PPT)를,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녹취 파일 등을 동원해 조 후보자 옹호에 나섰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속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가족관계증명서를 찢고 있다. /연합뉴스

후보자 부인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을 담은 대형 패넬에 꺼내 들었고, 정점식 의원은 서울대 학생들의 조 후보자 반대 촛불 집회 영상을 들었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경우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 사진을 휴대전화에 넣어 조 후보자에게 내보냈다.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한 한국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의혹, 조 후보자와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통화 논란, 딸의 인턴 활동 논란 등을 집중 공략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을 즉각 반박하거나, 조 후보자에 해명 기회를 주는 전략으로 야당의 에보를 꺾는 데 주력했다.

◇자료 제출 공방...서류 찢고 ‘폐북 진단서’ 흔들어=저녁 회의에선 한국당이 조 후보자 측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고성을 내며 거센 공방으로 비화했다. 김진태 의

원은 조 후보자 측이 자신이 요청한 가족관계 관련 서류 대신 8월에 법사위에 제출된 서류를 복사해 새로 떼어 왔다고 해명하며 서류를 눈앞에서 북북 찢어 날려버렸다. 김도읍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2014년 2학기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휴학하며 제출한 질병 진단서 대신 ‘아프다’는 내용이 담긴 딸의 페이스북 글을 자신에게 냈다면서 출력본을 손에 흔들어 언성을 높였다.

◇‘배우자 기소설’ 들면서 ‘사퇴 공방’=오후 11시를 넘어서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이날 자정 전 기소될 것이라는 말이 돌면서 조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한국당 의원들은 “부인이 기소되면 사퇴하겠느냐”며 조 후보자를 압박했다. 여 위원은 “부인이 기소되고 본인이 수사받고, 이런 법무부 장관이 과연 되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사퇴여부를 놓고 여야 간 논쟁이 이어지자 조 후보자는 “처가 기소될지 불기소될지 알 수 없다”며 “어떤 경우든 저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 제가 가벼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Gwangju Design Biennale
2019

사람 사는 세상, 따뜻하게

humanity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GWANGJU DESIGN BIENNALE
9.7-10.31

행사장소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재)광주디자인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은암미술관

주최 광주광역시
주관 광주디자인센터